**제목:**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항고 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행사 예고"

**내용:**

* 무슨 일인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녀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경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주식 거래를 독자적으로 진행했으며, 다른 이들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 매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주가 조작 가담자들의 문자 메시지와 거래 타이밍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여사가 현 대통령의 배우자인 만큼, 사건의 처리 결과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며 항고를 예고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항고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향후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건의 추이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건의 발단은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가 특정 가격에 매도된 거래에서 시작되었다. 김 여사는 해당 거래에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거래 당시 주가 조작 가담자들과의 의심스러운 메시지 기록을 확보했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후, 고발인이 항고 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은 재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인 수사지휘를 통해 철저한 검토를 약속했다.